

울산 태화강과 만난 불교 조명

대곡박물관 특별전...2014년 2월 6일까지



울산 대곡박물관에 전시된 간월사지 출토 금동여래입상(통일신라·사진 왼쪽)과 석남사 목조 업경대(조선 후기)



울산대곡박물관(관장 신형석)이 울산 불교문화를 조명하는 특별전 열었다. 간월사지 출토 금동여래입상, 석남사 사적기, 불화 등 80점의 불교 유물을 감상할 수 있는 '울산 태화강과 만난 불교(佛敎)'전이 2014년 2월 6일까지 대곡박물관에서 열린다.

울산대곡박물관은 전시의 이해를 위해 150쪽 분량의 전시도록도 제작했다. 여기에는 (삼국유사)에 나오는 울산지역 사찰에 관련된 내용들이 소개된다.

방리 폐사지가 백련사라고 하는 문헌기록을 찾은 것을 비롯해, 석남사 월하 계오 스님과 대곡천 유역에 백련정(백련서사)을 짓고 백련구곡(白蓮九曲)을 경영했던 도와 최남복(1759~1814)과의 교유 관계를 조명한다. 여기에 <연양현 호적대장>에 석남사와 간월사 승려 호적이 수록되어 있는 점, 울주 석남사 승탑(보물 제369호) 하대석에 코끼리상이 조각되어 있음을 확인한 내용 등도 살펴볼 수 있다.

이 전시도록은 울산지역의 불교문화를 다룬 또 하나의 성과물로, 관련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055)229-4781

정혜숙 기자

지화 장엄은 부처님 만나는 또다른 길

불교지화장엄전승회회원전 '염화미소' ...12월 18일까지



정명 스님

"법화경, 제2 방편품 3장 26 절에 '꽃한송이 정성 다해 불상 앞에 공양해도 이와 같은 인연으로 많은 부처님께 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따름과 꽃 공양은 둘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지화는 만드는데 이의 정성이 들어가는 꽃이니 지화 공양은 그만큼 큰 공덕을 쌓는 것이지요."

불교지화장엄전승회 정명 스님(봉축위원장)은 지화를 공양 올리는 의미를 이렇게 얘기한다. 제 2회 불교지화장엄전승회 회원전 '염화미소'가 12월 11~18일까지 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열렸다.

"육법공양 중에 꽃이 들어가잖아요. 예수제 영산재 수록재에서도 꽃을 올리는 건 기본이죠. 하지만 옛날에는 생화가 흔하지 않아 불단에 꽃을 만들어 올렸어요. 이를 법당 장엄이라고 해요."

하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지화는 현대인들에게서 멀어져 갔다. 어디서나 쉽게 생화



제 2회 불교지화장엄전승회회원전 '염화미소'가 12월 11~18일까지 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열렸다. 정명 스님의 불단 지화 장엄(사진 왼쪽)과 법해 스님의 수록재 등.

예수제·수록재 등의 지화 천연 염색 전통기법으로 재현 현대식 꽃꽂이로 대중화 시도 지화교육과정 연수접수 부여

를 살 수 있게 되었고 빠른 것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에게 오랜 시간 정성을 쏟아야 하는 지화는 큰 매력을 주지 못하면서 외면당하기 시작한 것이다. 스님은 지화의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한다. "세월 따라 꽃을 공양하는 방식도 변하게 된 거죠, 법당에서 지화를 찾아보기는 힘들어졌어요. 하지만 지화는 우리 전통 공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를 보존하고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번 전시에는 천연염색에 천연 염료로 염색해 만든 모란 작약 연꽃 국화 등이 지화 43작품으로 탄생했다. 전시회에는 두타산 삼화사와 삼각산 진관사의 회원들이 국행수룩대재에서 쓰인 작별 지화를 모았다. 여기에 불교 전통 꽃꽂이는 물론 사찰 법당에 올릴 수 있는 현대식 꽃꽂이도 작품으로



12월 11일 전시 오픈 행사로 열린 테이프 커팅식 장면. 이 자리에는 조계종 문화부장 헤일 스님, 진관사 주지 계오 스님과 총무 법해 스님, 정명 스님 등이 참석했다.

제작했다. 특히 이번 전시에는 대한불교 꽃꽂이 회원들이 제작한 지화가 선보여 의미를 더한다.

정명 스님은 "주로 생화를 꽃꽂이 하는 회원들이 참여해 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고전과 현대의 재해석을 통해 지화의 대중화를 시도하고자 한 것이다. 가정에서도 지화를 장식할 수 있었을 하는 바람을 담았다. 이번 과정을 통해 일반인들에게도 지화가 대중화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계획을 전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카라수선화 등을 현대식 꽃꽂이 지화로 만나볼 수 있다.

정명 스님은 "지화 장엄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거나 불교의례를 봉행할 때 올리는 불가의 전통문화"라며 "사람의 손으로 꽃을 피워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은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수행의 방편"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스님은 지화를 교계 안팎으로 알려나가는 데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특히 가맹 연화세계를 중심으로 스님들 위주의 교육은 물론 불자들에게도 지화 교육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스님들이 이 과정을 이수하면 교육원 연수교육 인증과정으로 인정돼 수료시 연수접수 30점이 부여된다.

정혜숙 기자 bwjns@hyunbul.com

"한민족의 혼과 정을 단순미로 표현"

불자 화백 임무상 이태리 전시



임무상 화백의 '금강별곡'

불자 화백 임무상이 12월 28일까지 이태리 'ARTISSIMA de Silvia Prielz' 갤러리 초대전을 연다.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한민족의 혼과 정을 깊은 단순미로 표현한 작품 15점을 선보인다.

한 곡선공통체 미학입니다. 이는 곡선문화에 대한 예찬과 내재된 공동체 정신과의 함수관계를 재해석해 수목의 모더니즘을 추구했습니다."

또한 자연에서 나오는 천연염료들을 그림의 재료로 사용해 한국의 빛깔을 표현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임 화백은 "자연의 소중함과 조국애와 향수, 이웃사랑의 소중함을 일깨워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위안을 주고 싶다"고 전했다.

아침마다<천수경><반야심경>을 독송하는 임 작가는 재가불, 염, 역사의 장 등 불교를 소재로 한 다수의 작품을 선보여 왔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수목의 한국적 곡선미학을 창출해낸 모더니즘에 온 힘을 쏟았다.

정혜숙 기자

템플스테이 홍보관 '2013년 그해'

신년 1월 22일까지 특별기획전



2013년 한 해 동안의 전시 작품을 모은 템플스테이 홍보관 전시장 전경

도심 전시공간으로 거듭난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 1층 홍보관(이하 템플스테이 홍보관)이 2013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2014년 1월 22일 열리

올 3월부터 매달 소규모 전시 일부 작품 다시 관람객 찾아

는 이번 전시는 2013년 3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전시됐던 작품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

지금까지 템플스테이 홍보관은 불교와 전통을 소재로 하는 다양한 작품으로 관람

객들을 찾아갔다. △제 5회 불교문화상품 공모전 작품 전시 △찾잔이야기(최재훈 작가) △명주사 고판화 △낯은 고무신(희상 스님) △고운색 그릇전(정선영 작가 외)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김석영 작가) △초록실과 조각들(유하 작가) △소망을 담은 우리 그림 민화(강효진 작가 외) △단청과 한지의 아름다운 만남(김민 작가) △나를 만나고 행복을 얻다(박준수 작가전)

이 중에서도 특히 희상 스님의 '낯은 고무신'은 스님들의 고무신에 무성한 새싹들을 담은 설치작품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다.

템플스테이홍보관은 그간의 작품을 실은 소책자로 만들고 대중들의 관심을 모았던 민화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또한 전통문양이 든 캐릭터 상품들도 판매한다.

정혜숙 기자

예불음악회 '천년의 소리'



대구불교방송이 주최하고 함께하는 세상과 나우타불교합창단이 주관하는 나눔 음악회 '예불, 천년의 소리'가 12월 5일 대구 아양아트센터에서 개최됐다. 음악회는 불교의 예불의식을 무대예술로 승화시킨 공연작품은 물론 비보이 공연, 부채춤, 천불가 독창과 합창 등이 이어졌다. 공연 수익금은 라오스 생광주 마을의 교육환경 시설개선과 대구경북지역 이주민 지원을 위해 사용된다.

손은철 대구지사장

늘 피곤하고, 팔, 허리, 어깨가 쑤시며 깊은 잠 못자는 여러분을 위한 희소식!
귀사문석(貴蛇紋石) 만능 미니 온열매트!

※ 귀사문석 온열매트는 근육통완화를 위한 식약청 의료용구 제조허가번호 제 426호, 품목허가 제 09-651인 의료기기입니다.

피부속 50mm까지 침투하여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주는 **생명의 빛! 원적외선**이 93% 이상방출되는 **방안의 숯가마로**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있는 **냉기(冷氣)를 해소**하.

374 개로 구성

기도할 때는 좌복으로, 취침시에는 온열 매트로!!

올 겨울 추위는 방안의 숯가마 찜질방(전자파완전 차단)과 함께!

생명의 빛 원적외선

귀사문석 온열매트에서는 93%이상 방출되는 원적외선이 우리몸의 피부속으로 50mm까지 침투하여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준다. 그리고 피하심층의 온도상승, 미세혈관의 확장, 신진대사의 강화, 부인병, 신경계 질병, 노인성질환, 어깨결림, 허리통증완화, 장속의 노폐물, 중금속 배출등에 탁월한 효과가 인정되고 있다. 또한 현대생활 주택이 시멘트 구조로 되어있어 자연적으로 지기(地氣)를 차단하여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으나 귀사문석은 천연의 강력한 기(氣) 방사체이므로 자연적으로 신체에 활력소가 되어준다. 귀사문석은 항균효과 86%, 항암 효과가 억제력은 거의 100%이며, 냄새 제거 능력도 탁월하다.

■ 판매원 : 선재생활건강(주) / 경기 남양주시 평내동 580-1 리베로빌딩 5층
 ■ 문의전화 : 031)595-8767, 010-4399-4326 선재생활건강(주) ■ 입금계좌 : 농협 355-0014-5055-43

부처님 진신사리가 모셔진 다보탑과, 영엄한 돌미륵이 있는 남해 미륵암

- 남해 독일마을 바로 앞 -

귀의삼보 하얏고, 부처님 진신사리가 모셔진 다보탑과 영엄한 돌미륵이 있는 남해 미륵암에서 갑오년 새해 해맞이 관음기도와 방생법회를 봉행합니다

갑오년 새해 해맞이 관음기도 접수합니다. 각 사찰은 물론 개별 불자님을 신청바랍니다. 2014년 1월 1일 남해 물건항 어부림 숲 앞 바닷가에서

대웅전 중창불사 중 돌미륵

49재를 잘 하는 미륵암 - 제사, 영구 위패를 모십니다
 승진기도, 임용고시기도, 사업자를 위한기도, 일년가족축원 접수중

계좌번호 : 농협 831075-51-023041 / 국민은행: 969801-01-298041 / 예금주: 미륵암

미륵암 주지 청운 합장

주소 _ 경남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물건리 방조어부림 앞)
 문의 _ 055)867-0776, 2259 / 홈페이지 주소 : www.미륵암.com